

소득 줄고 일자리 잃고... 지역경제 '부진의 늪'

광주 4월 실업자수 3만6천명 전년비 8천명 늘어
3월 실업률 5% 9년만에 최고... 전남 4.5% 달해
광주 1분기 광공업 생산도 전년비 10.1% 줄어
문 대통령, 공정위에 '경제 민주화 TF' 총괄 지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 민주화 정책에 대해 총괄 지휘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위에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했고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총괄서기관을 팀장으로 TF를 꾸렸다. TF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경제 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공약에서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 정책이 추진되는 데 생길 수 있는 부처 간 이견도 조율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가계소득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별도로 주도하고, '경제 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려된다.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 통계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점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과 경제계 분석이다. 지역 경제 현황도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암울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저소득층 소득 급감= 우선, 통계청이 지난 주 공개한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대통령이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긴급 점검 회의를 열게 된 배경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 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8만 6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 급락했다.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 명목소득은 월평균 1015만 1700원으로 9.3% 증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 급감 통계는 아픈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최저임금을 올린 올해 1분기에 1분위인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한 통계수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지표 최악=자영업자 늘고 고용지표도 최악이다.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처음이다.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로 전남도 4월 광주지역 실업자는 3만6000명으로 1년 전(2만8000명)보다 8000명이나 늘었다. 실업률도 4.6%로 전년도 같은 기간(3.7%)보다 0.9%포인트 올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 탓인지 도소매·음

식숙박업 종사자가 1년 전(17만1000명)에 견줘 9.1%(1만6000명) 줄어들었다. 광주지역 도소매·음식업 종사자는 통계가 작성된 2013년 1월 이래 가장 적었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줄면서 자영업자도 급감했다. 자영업자는 전년도(15만5000명)에 비해 3.9%가 줄면서 14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2년 8월(14만8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 3월도 비슷했다. 3월 광주지역 실업자(3만9000명)는 1년 전(2만명)보다 1만9000명이 늘었고 월별로 보면 2001년 3월(3만8000명)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였다. 3월 실업률 5.0%는 지난 2009년 3월(5.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남도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다소 나아졌지만 3월 실업률(4.5%)의 경우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역대 4번째로 높은 정도

로 최악의 상황을 지내고 있다. 지난해 단행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생산은 '부진' =호남지방통계청의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광주·전남, 전북·제주를 포함한 호남권 광공업생산도 1년 전보다 4.6% 감소했다. 광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부진으로 광공업 생산이 전년도 동기 대비 10.1% 줄었고 전남은 기타기계·장비 제조업 등의 영향으로 3.8% 감소했다.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의 매출, 고용 급감으로 최근 3년새 목포지역 1만4768개, 영암 2171개 등 1만6939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대불산단 가동률도 2015년 말 84%에서 지난해말 59%로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임동욱·김지을 기자 tuim@kwangju.co.kr

북미 협상팀, 판문점 실무협상 마무리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팀이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의 교환 방안을 놓고 판문점에서 벌인 실무협상이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측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측 협상팀과 27일 1차 실무회담에 이어 2차 실무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협상팀은 오후 2시 50분경 통일대교를 통과해 남측 방향으로 향해 북미 양측이 4시간 안팎 회담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측 협상팀에는 성 김 대사 이외에 엘리스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도 참여했다. 북미 양측은 1·2차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방안과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 방안 등을 집중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는 지난 27일 1차 회담에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사흘 만에 속개된 이날 회

담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냈을지 주목된다. 특히 성 김 대사는 31일 출국해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판문점을 무대로 진행된 '성 김-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은 2차 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문점 협상을 통해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의 교환 방안에 대해 진전된 안을 도출했다면, 이를 토대로 미국 뉴욕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의 쟁점을 놓고 막바지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의 김 부위원장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현지시간으로 30일 오후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으며, 뉴욕 현지시간으로 30~31일경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고 워싱턴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북미 양측에서 최근 정세전환 국면을 주도해온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2일 정상회담에서 승인할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12 북미정상회담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회담 미국 측 대표단의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 "북미 실무협상 엄청난 진전"

"정상회담 준비 작업 착수할 것"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6·12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이 "엄청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3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변인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의제 등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현재 판문점-싱가포르-뉴욕에서 개최되는 실무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세부 내용을 전부 말하진 않겠지만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 우리가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약 2주전 예정됐던 싱가포르 사전 준비 회의에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미국 측의 연락도 받지 않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추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과 지난 며칠 사이 엄청난 진전(tremendous amount of progress)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테네시주(州) 내슈빌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번주에 진행 중인(북미간) 회담들은 확실히 진전의 신호였다"며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의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회담 의제와 의전 등의 문제를 놓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각각 실무회담이 마무리됐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뉴욕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의 고위급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 예정대로 개최될 것을 전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열릴 경우에 대비해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 인해 그 이후에 열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결정을 언제 내리느냐. 결정이 시한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준비돼 있지만, 개최를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요인이 뭔지를 묻는 기자에게 "많은 요인이 있지만,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고 회담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심의회호 : 21719239

010-3598-7080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비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금융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